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이츠,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1호는 ‘청량리시장’

2026. 3. 13.

청량리시장 ‘고향족발’ 사장님

- **지역경제 버팀목인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 시작**
- **기획전·영상·할인 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시장 소비 확대**
- **청량리시장 시작으로 타 전통시장으로 확대 예정**

2026. 03. 13. 서울 - 쿠팡이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을 시작한다.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을 적극 알리고 소비를 독려해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대상지로 쿠팡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온 청량리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청량리시장의 대표 명소인 통닭 골목을 비롯해 족발·보쌈 골목, 순대국·해장국 골목 등 주요 맛집을 소개한다. 다채로운 반찬류, 신선한 과일·채소, 제철 수산물 등 장보기 매장도 함께 참여해 시장 전체의 상점 구성을 쿠팡이츠 기획전 화면에서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기획전은 이달 31일까지 운영되며, 고객들의 전통시장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와우회원 대상 2000원 할인 쿠폰도 선착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청량리시장 먹거리 및 장보기 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은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가 지난해 전국상인연합회와 체결한 전통시장 상생협약의 연장선이다.

시장에 입점한 신규 매장들도 이번 기획전에 포함, 시장 노출 확대로 고객 접점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기획전과 함께 청량리시장 통합 홍보영상과 매장 4곳의 개별 홍보영상을 제작해 상인들에게 무상 제공했다. 해당 영상은 상인들이 상시 활용 가능해 시장 전체의 디지털 홍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량리시장 '한일상회' 사장님

1960년초 개장한 청량리종합시장은 서울시 1호 종합시장으로,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다. 그동안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는 청량리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교육, 메뉴·상품 전문가 사진 촬영 지원, 친환경 포장용기 제공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해왔다.

청량리시장에서 젓갈과 절임반찬을 판매하는 '한일상회'는 "예전부터 배달앱 운영에 관심이 있었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쿠팡이츠 입점을 결정했으며 배달 고객층을 더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20년째 족발을 판매해 온 '고향족발'은 "배달과는 거리가 먼 업종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고객 인기를 얻어 시장 배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했다.

유완희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장은 "쿠팡이츠가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니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우리동네 청량리시장' 기획전

쿠팡이츠는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을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다른 지역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전통시장 대상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을 1년 연장하기도 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청량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이 온라인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